

insight

출제 의도를 꿰뚫는
깊이 있는 시선

2027학년도
성공적인 수능을 위한
이감의 6모 분석자료집



2026
이감
인기TOP10

I

주요 데이터 분석

등급컷 / 오답률 TOP 10

[등급컷 분석]

등급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26학년도 대수능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예상 등급컷		
	평가원	평가원	EBS	대성마이맥	메가스터디
1	97/91	90/85	96/95	96/95	95/95
2	89/85	82/78	91/89	90/89	87/87
3	79/76	71/69	82/81	81/80	79/79
4	70/65	61/59	71/70	69/68	67/67
5	55/52	48/46	56/56	54/53	54/54
6	41/38	36/34	41/41	38/37	39/39
7	27/23	26/24	27/27	23/22	26/26
8	21/18	19/17	20/20	18/18	19/19

※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순서로 점수를 기재함.

- 01** 일반적으로 6월 모의평가는 시험 자체의 실제 난도에 비해 등급컷이 낮게 형성되는 편이다. 사실상 그 해의 첫 평가원 시험인 만큼 수험생들의 실전 감각이 아직 부족하고, 평가원 시험에서 느끼는 부담과 긴장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상 등급컷이 다소 높게 형성되었다. 이는 단순히 수험생들의 시험 적응도 향상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며, 시험의 실제 난도가 상당히 낮았음을 보여 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
- 02** 작년 6월 모의평가도 화법과 작문은 등급컷이 높게 형성되었는데, 당시에는 일부 언어 문항이 까다롭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는 상대적으로 등급컷이 낮게 형성되었다. 그런데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선택과목 간 등급컷 차이가 크지 않았다. 특히 작년 6월 모의평가에서 문학이 쉽게 출제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문학은 그와 비교해서도 더 쉽게 출제되었다. 통계적으로 분석하자면, 작년 6월 모의평가에서 문학의 평균 오답률은 23%였던 반면, 이번에는 21%로 더 낮아졌다. 즉, 이번 시험은 '쉬운 독서, 쉬운 문학, 쉬운 선택과목'으로 정리할 수 있다.

03 그렇다면 올해 수능의 난도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 올해 수능은 이번 6월 모의평가보다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평가원에서는 6월, 9월 모의평가를 통해 당해 연도 수험생들의 역량을 가늠하여 수능을 출제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평가원에서 수능은 이보다 까다롭게 출제해야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평가원 시험의 출제 경향을 볼 때 6월 모의평가 국어가 어렵게 출제된 경우[→ 2023학년도 6모, 2025학년도 6모] 해당 연도의 수능은 적정 난도로 출제되거나 쉽게 출제되었지만, 6월 모의평가 국어가 쉽게 출제된 경우[→ 2024학년도 6모, 2026학년도 6모] 해당 연도의 수능은 까다롭게 출제되었다. 문제는 많은 수험생들이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나는 생각보다 국어를 잘하는구나. 나는 평가원 성적만 믿어.’라고 생각하며 이후 국어 공부에 소홀해진다는 점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수능이지, 6월 모의평가가 아님을 명심하자.

04 최근 평가원 시험들과 비교했을 때 이번 시험은 선택과목 간의 격차가 사실상 거의 없었다. 언어와 매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1~2개 문항은 충분히 학습한 수험생들도 함정에 빠지기 쉽도록 설계되어, 오답률이 60% 내외로 형성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즉, 변별을 목적으로 한 문항이 꾸준히 포함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고, 오히려 화법과 작문에서 한 문항[→ 45번]이 비교적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선택과목 간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다만 이번 시험은 예외적인 경우이며, 이를 근거로 삼아 앞으로 수능을 포함한 평가원 시험에서 선택과목 간의 격차가 거의 없게 출제될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올해 수능에서도 표준점수 기준으로는 언어와 매체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오답률 TOP 10_화법과 작문]

순위	문항 번호	영역	배점	오답률	정답	선지별 선택 비율				
						①	②	③	④	⑤
1위	13	독서	3	70%	⑤	11%	28%	14%	17%	30%
2위	45	화작	3	65%	④	2%	4%	35%	35%	24%
3위	22	문학	2	50%	①	50%	4%	41%	4%	1%
4위	8	독서	3	47%	⑤	7%	20%	8%	12%	53%
5위	6	독서	2	42%	①	58%	6%	19%	6%	11%
6위	12	독서	2	41%	⑤	2%	9%	7%	23%	59%
7위	15	독서	2	41%	④	10%	7%	11%	59%	13%
8위	16	독서	3	39%	③	4%	11%	61%	15%	9%
9위	14	독서	2	35%	⑤	2%	9%	7%	17%	65%
10위	27	문학	2	34%	②	21%	66%	5%	3%	5%

독서 7 문학 2 화작 1

(홀수형 기준 / %는 반올림한 값임)

- 01** 오답률 TOP 10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독서 7문항, 문학 2문항, 화작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년 6월 모의평가는 오답률 TOP 10이 독서 5문항, 문학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시험에서는 주로 독서에서 변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화법과 작문 기준으로 작년 6월 모의평가에서 오답률 TOP 10에 포함된 문항의 평균 오답률은 독서가 약 53%, 문학이 약 36%였고, 이번 시험에서는 독서가 약 45%, 문학이 약 42%이므로 평균 오답률 측면에서는 두 영역이 서로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독서와 문학이 모두 어려웠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 전반적인 시험 난도가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조금 헛갈리도록 설계된 문항도 오답률 TOP 10에 포함된 측면이 있다. 결국 이번 시험을 통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난도 자체보다, 난도가 낮은 시험에서 사소한 실수 하나가 등급과 표준점수에 얼마나 크게 작용할 수 있는가이다.
- 02** 독서 영역에서는 주제통합형 인문 지문에서 2문항(→ 6, 8번), 사회 지문에서 2문항(→ 12, 13번), 과학·기술 지문에서 3문항(→ 14, 15, 16번)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그중 8, 13, 16번은 전통적으로 오답률이 높은 <보기> 유형의 문항이었고, 이 문항들을 제외하면 지문의 두 관점에 대한 상호 비판을 요구하는 6번의 오답률이 가장 높았다. 6번처럼 한 관점에서 다른 관점을 비판해야 하는 유형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므로, 이 문항의 오답률이 높게 형성된 것은 문제 유형 때문이라기보다, 선지에서 요구하는 세부 내용 판단이 지엽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주제통합형 지문은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사회 영역으로 출제된 이후로 계속해서 인문·예술 영역으로만 출제되어 오다가, 작년 6월 모의평가와 수능에서는 다시 사회 영역으로 출제되었다. 따라서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주제통합형 지문이 인문 영역으로 출제된 것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 03** 문학 영역에서는 갈래 복합에서 2문항(→ 22, 27번)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내용상 어렵지 않은 작품들을 평이한 방식으로 묻고 있어, 문학에서 시간을 얼마나 많이 절약할 수 있었는지가 시험 전반에 대한 시간 관리의 핵심이었다. 그중 22번의 오답률이 높았던 것은 작품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기보다,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①번 선지의 표현이 다소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27번 역시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시험이 전체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오답률 TOP 10에 포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학 영역의 문항 구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다도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감상을 묻기보다는 단순한 내용 일치 여부를 묻는 선지가 많았다. 평소에 작품의 핵심 장면과 화자나 인물의 정서를 분석적으로 정리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면, 문학 영역에서 시간을 한층 여유롭게 운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 04** 선택과목에서 주목할 점은 작문 문항이 오답률 TOP 10의 2위에 올랐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언어와 매체가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된 상황에서 이처럼 화법과 작문에 까다로운 문항이 출제됨에 따라, 두 선택과목 간 격차가 사실상 거의 사라졌다. 다만 45번의 오답률이 65%나 되는 것은 출제자가 의도한 결과가 아닐 것이다. 해당 문항의 오답률이 높았던 것은 함정이 정교했기 때문이라기보다, 어휘력 부족과 의미 해석을 실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화법과 작문의 경우 깊이 있는 지식을 묻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러한 실수가 쉽게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표준점수의 손해가 막대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자. 또한 수능에서는 이번 6월 모의평가처럼 언어와 매체가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될 가능성도 낮다.
- 05** 각 영역에서의 지문별 세부적인 내용이나 참조할 점에 대해서는 후술되는 [출제 경향과 영역별 특징 분석]에서 설명하겠다.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오답률 TOP 10_언어와 매체]

순위	문항 번호	영역	배점	오답률	정답	선지별 선택 비율				
						①	②	③	④	⑤
1위	13	독서	3	53%	⑤	7%	26%	9%	11%	47%
2위	8	독서	3	35%	⑤	5%	19%	5%	6%	65%
3위	22	문학	2	34%	①	66%	2%	29%	2%	1%
4위	6	독서	2	33%	①	67%	3%	19%	3%	8%
5위	12	독서	2	24%	⑤	1%	4%	3%	16%	76%
6위	15	독서	2	24%	④	10%	2%	5%	76%	7%
7위	37	언매	3	19%	②	6%	81%	5%	3%	5%
8위	27	문학	2	18%	②	13%	82%	1%	1%	3%
9위	29	문학	2	18%	③	2%	5%	82%	10%	1%
10위	16	독서	3	17%	③	2%	4%	83%	7%	4%

독서	6	문학	3	언매	1
----	---	----	---	----	---

(홀수형 기준 / %는 반올림한 값임)

01 오답률 TOP 10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독서 6문항, 문학 3문항, 언매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년 6월 모의평가는 오답률 TOP 10이 독서 5문항, 문학 2문항, 언매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시험에서는 주로 독서에서 변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작년 6월 모의평가에서 오답률 TOP 10에 포함된 독서 문항들의 평균 오답률은 약 39%였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낮아져서 약 31%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공통과목에 강한 수험생들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는 독서 역시 실질적인 변별력이 느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작년 6월 모의평가에서 오답률 TOP 10에 포함된 문학, 언어와 매체의 평균 오답률은 각각 약 28%, 43%였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약 23%, 19%에 그쳤다. 곧 나머지 영역도 전보다 쉽게 출제되어 변별력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02 독서 영역에서는 주제통합형 인문 지문에서 2문항(→ 6, 8번), 사회 지문에서 2문항(→ 12, 13번), 과학·기술 지문에서 2문항(→ 15, 16번)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그중 8, 13, 16번은 전통적으로 오답률이 높은 <보기> 유형의 문항이었고, 이 문항들을 제외하면 지문의 두 관점에 대한 상호 비판을 요구하는 6번의 오답률이 가장 높았다. 6번처럼 한 관점에서 다른 관점을 비판해야 하는 유형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므로, 이 문항의 오답률이 높게 형성된 것은 문제 유형 때문이라기보다, 선지에서 요구하는 세부 내용 판단이 지엽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주제통합형 지문은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사회 영역으로 출제된 이후로 계속해서 인문·예술 영역으로만 출제되어 오다가, 작년 6월 모의평가와 수능에서는 다시 사회 영역으로 출제되었다. 따라서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주제통합형 지문이 인문 영역으로 출제된 것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 03** 문학 영역에서는 갈래 복합에서 2문항[→ 22, 27번], 고전소설에서 1문항[→ 29번]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내용상 어렵지 않은 작품들을 평이한 방식으로 묻고 있어, 문학에서 시간을 얼마나 많이 절약할 수 있었는지가 시험 전반에 대한 시간 관리의 핵심이었다. 그중 22번의 오답률이 높았던 것은 작품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기보다,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①번 선지의 표현이 다소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오답률이 20% 미만인 27번과 29번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이번 시험의 난도가 전반적으로 낮았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문학 영역의 문항 구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다도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감상을 묻기보다는 단순한 내용 일치 여부를 묻는 선지가 많았다. 평소에 작품의 핵심 장면과 화자나 인물의 정서를 분석적으로 정리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면, 문학 영역에서 시간을 한층 여유롭게 운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 04** 선택과목에서 주목할 점은 언어와 매체가 평이하게 출제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언어 문항에서 높은 오답률로 변별력을 확보하는 문항이 1~2개 출제되었지만[→ 2026학년도 6월, 9월 모의평가와 수능에서는 오답률 1위가 전부 언어 문항이었다.], 이번에는 오답률 TOP 10에 포함된 언어 문항조차 오답률이 19%에 그쳤다. 즉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수험생들도 선택과목에서 시간을 많이 빼앗기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이번 시험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전반에서 난도가 높은 문항으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기보다, 실수를 얼마나 하지 않았는지가 점수 차이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 05** 각 영역에서의 지문별 세부적인 내용이나 참조할 점에 대해서는 후술되는 [출제 경향과 영역별 특징 분석]에서 설명하겠다.

II

출제 경향과 영역별 특징 분석

공통과목 : 독서

01. 출제 경향

▶ 총평

전체적인 난도는 매우 평이했다. 지문과 선지의 길이는 최근 시험들과 비슷했으며, 그중 특히 주제 통합형 지문의 길이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작년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는 짧아졌다. 또한 선지의 길이와 별개로 정답 선지가 적절한 이유 또는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났으므로, 수험생들의 실질적인 부담은 매우 낮았을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수능에서는 대체로 독서 영역에서 상위권 변별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올해 수능에서 독서 영역의 난도가 이번과 같은 수준일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한편 독서론을 포함해 모든 지문에서 EBS 연계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이번 시험의 특징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인 연계 체감도가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평가원 시험에서 EBS 연계는 이번처럼 형식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명확하게 체감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어떤 방식으로 연계될지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EBS 지문을 배경지식으로 삼아 해당 지문들이 변형되어 출제되는 다양한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지문 평가

- 지문의 구성은 달라지지 않았다. 독서론 지문 1개, 주제통합형 지문 1개, 단일 지문 2개가 출제되었다. 2025학년도 수능부터 독서론[→ 1~3번]에 이어 주제통합형 지문이 앞쪽[→ 4~9번]에 배치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성을 현재 평가원이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문 배치 순서 자체가 아니라, 각 지문에 적정 시간을 배분하여 시험 시간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 독서론[→ 1~3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평이하게 출제되었고, 수능특강과의 연계도 다른 지문들에 비해 비교적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다만 독서론이 항상 쉽고 평이하게 출제되는 것은 아니다. 작년 9월 모의평가와 수능에서는 <보기>의 정보 밀도를 높여 독서론에서도 시간이 다소 소요되도록 설계했었다. 독서론은 독서 영역의 시작점인 만큼, 여기서 페이스가 흔들리면 이후 전반적인 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시험이 쉬웠다는 것에 안도하지 말고, 다양한 풀이 시나리오를 준비하여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감 모의고사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직전 모의평가를 답습하기보다 여러 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 주제통합형 인문 지문[→ 4~9번]은 수능특강 38쪽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형평 운동’과 연계되었다. 수능특강 지문은 ‘조선 시대의 신분제’를 짧게 언급하고 ‘형평 운동’의 전개 과정을 소개했다면, 이번 모의평가 지문은 (가)에서 조선 후기 ‘노비’ 문제에 대한 양반들의 인식 변화와 이와 관련된 이익의 관점을 설명한 후, 이를 (나)에서 19세기 말 민권과 관련한 급진 개화파, 온건 개화파의 관점과 비교할 수 있게 제시하였으며, ‘형평 운동’에 대해서도 보다 통시적 관점에서 다루었다. 수능특강 지문에서는 비교적 단편적인 내용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계 체감도는 높지 않았을 것이다. 지문의 길이가 길거나 난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익, 유길준, 박영효, 김윤식 등 여러 관점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부 정보를 순차적으로 정리하며 읽을 필요가 있었다[→ 6, 8번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면 이 부분이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나)는 정보들이 통시적 흐름에 따라 단순 나열되어 있으므로, 제시된 정보들을 완전히 파악하기보다는 그 순서와 흐름만 전체적으로 파악한 뒤, 선지의 정오를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지문에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었는지가 관건이었다.
- 사회 지문[→ 10~13번]은 수능특강 114쪽의 ‘정보 비대칭과 역선택’과 연계되었다. 다만 수능특강 지문에서는 이를 어디까지나 경제학의 측면에서 설명했다면, 이번 모의평가 지문에서는 초반부에 ‘정보 비대칭 상황’을 언급했을 뿐, 실제적으로는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개입에 대해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에 입각한 헌법학적 논의를 자세히 다루었다. 따라서 연계 체감도는 마찬가지로 매우 낮았을 것이다. 한편, 해당 지문은 이번 모의평가의 독서 영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글의 구조가 가장 선명했다.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은 헌법 재판소의 ‘다수 의견’에 부합하고,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에 대한 비판론’은 ‘소수 의견’에 부합한다는 점을 파악했다면, 이를 중심으로 나머지 정보들도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과학·기술 지문[→ 14~17번]은 수능특강 31쪽의 ‘폐포의 표면 장력과 계면 활성제’와 연계되었다. 수능특강 지문의 핵심 개념소인 ‘폐포, 라플라스 법칙, 표면 장력’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지만, 지문의 초점이 선명하지 않고 많은 정보가 나열되고 있어 문단1~2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수능특강 지문과 연계되었다고 체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비교적 낮은 용어가 다수 등장했기 때문에 다른 지문들보다 독해 시 부담이 컸을 것이다. 다만 문항에서 요구한 핵심은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용어들 곧 개념들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었다. 즉, ‘표면 장력에 정비례, 반지름에 반비례’, ‘점도가 커질수록 오네소르게 수가 커짐’ 등의 중요 정보를 독해 과정에서 올바르게 파악했어야 한다.

▶ 문항 평가

- 오답률 TOP 10을 살펴보면 화법과 작문에서는 7개, 언어와 매체에서는 6개가 독서 문항이었다는 점에서, 주로 독서에서 변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평가원은 지속적으로 독서 영역에서 소위 ‘킬러 문항’을 통한 변별을 지양하고 있으며,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지 판단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여러 장치를 활용하고 있다. 다만 실제 수능에서는 변별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까다로운 선지들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으니 방심하면 안 된다. 한편 이번 모의평가에서도 <보기> 문항들의 오답률이 전반적으로 높았고, 수험생들이 헛갈린 선지들을 보면 대체로 지엽적 정보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묻고 있어 실수하기 쉬운 구성이었다.
- 주제통합형 인문 지문은 6, 8번이 복병이었다. 특히 8번의 오답률이 더 높았는데, 이는 8번이 <보기> 문항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답인 ⑤번 선지가 다른 선지들에 비해 추상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⑤번 선지에서 지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다루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난도 문항 해설]에서 살펴보겠다.

- 사회 지문 역시 <보기> 문항인 13번이 가장 까다로웠다. 다만 이 문항도 <보기>의 구조나 내용이 까다로워서 오답률이 높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번 선지에서 언급한 지엽적 정보의 적합성을 지문 내용에 견주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많아 오답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모의평가의 국어 영역은 전체적으로 난도가 낮아 시간 관리가 용이했다는 측면에서, 시간 부족으로 인해 지엽적인 함정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 아니었다. 선지가 주는 대략적인 느낌이나 익숙한 단어에 현혹되어 대강 판단하지 말고, 선지에 포함된 내용 전체를 꼼꼼히 판단해야 함을 명심하자.
- 과학·기술 지문은 낯선 정보들이 나열되는 구조였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의 피로도가 다른 지문들에 비해 비교적 높았을 것이다. 특히 지문의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능동적인 추론도 요구되었다 [→ 가령 문단1에서 '표면 장력'이 '액체 분자 간의 인력'의 결과라는 점을 토대로, 문단3에서 구성 물질이 같다면 표면 장력의 크기도 같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모든 문항의 오답률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다만 16번의 경우 역대 과학·기술 지문의 <보기> 문항들 중에서도 매우 쉬운 편이다. 지문에서 추론해야 하는 정보가 많았던 만큼, <보기> 문항에서의 부담을 의도적으로 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02. 지문 분석

[4~9] (인문·인문) 노비 문제에 대한 이익의 주장과 민권에 대한 논의

주목해야 할 지문(2027학년도 6모 대비): 중요도 B

- (가)는 조선 시대 노비에 대한 양반들의 인식과 이익의 조명론을 통해 신분 질서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나)는 민권에 대한 논의가 개화파, 독립 협회, 형평 운동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가)와 (나)의 접점은 '인간의 권리와 평등을 어떤 근거로 설명할 것인가'에 있다. 따라서 (가)를 노비 문제에 대한 비판의 역사로만 읽기보다, 이익이 조명의 대상을 '노비를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나)에서 다루는 민권에 대한 논의와 연결했어야 한다.
- 연계 양상: 수능특강 38쪽에서 다룬 핵심 개념소인 '신분제, 형평 운동' 등이 해당 지문에서도 그대로 사용되었지만, 초점을 맞춘 범주가 다르고 소재의 친숙함 이외에 얻을 수 있는 점은 적었기 때문에 연계 체감도가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선 시대의 신분제와 관련된 논의를 이감 간쓸개에서 여러 차례 다루었으므로, 이번 모의평가에서 해당 내용이 크게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난도 문항 해설 8번

■ 경로 설계

<보기>에 새로운 관점들이 주어졌으므로, 이를 지문의 관점들[→ 이익, 유길준, 박영효, 김윤식, 독립 협회 등]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곧 이들이 어떤 점에서 다른 주장을 펼쳤는지, 각 주장에 어떠한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 <보기> 설명

- 1) 서양의 고대 사상가들은 대체로 노예제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본래부터 심사숙고 능력이 없는 노예는 시민과 구별하여 철저하게 정치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보았다.
 - ➡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서양의 고대 사상가들’이 노예제를 정당화한 것은 타고난 능력 차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김윤식’의 주장과 비슷한 면이 있다[(나)의 문단2]. 그 역시 타고난 능력에 따라 귀천이 생기고 이에 따라 부림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2) 계몽주의 시대 이후, 사회의 공리(功利)를 극대화하지 않는 모든 제도와 법률의 근본 개혁을 촉구하며 노예를 해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 ‘계몽주의 시대 이후’부터는 노예제를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때 제도와 법률의 개혁을 강조한 것은, ‘박영호’와 주장과 비슷한 면이 있다[(나)의 문단1]. 그도 법을 통해서만 민권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3) 그리고 유럽 각국의 식민 지배에 따라 노예를 사고파는 노예 무역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예들의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키자는 노예 해방론이 제기되었다.
 - ➡ ‘노예 해방론’이 제기된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 4) 노예제하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노예에서 해방되어 문학적 성취를 이룬 노예 출신 작가들은 노예를 차별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며 노예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 ➡ ‘노예 출신 작가들’은 노예 해방론에 호응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이익’의 관점과 통하는 면이 있다[(가)의 문단3]. 그는 운명의 세 가지 유형 중 인간의 힘이 관여하는 ‘조명’에 주목하고 인간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스스로의 노력으로 빈부, 귀천 등을 바꿀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주목] 이익은 이러한 맥락에서 노비의 매매와 세습을 반대하였다. 그런데 이는 노예 해방론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익은 노비를 당장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비가 점차 사라질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노비의 매매와 세습 금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어떤 노비는 ‘조명’을 통해 스스로 귀천을 바꿀 수 있지만, 어떤 노비는 그러하지 못할 것이다. 곧 그는 ‘모두에게 기회를 개방’하되, ‘삶의 변화는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가)의 문단4].

❖ 정답 설명: ㉔

- 1) ‘노예 출신 작가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노예에서 해방되고 문학적 성취를 이룬 뒤, 그 성취를 근거로 노예를 차별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며 노예제에 반대했다[<보기>-4)]. 즉, 이들의 성취에 대해서는 개인의 능동적 노력에 의해 사회 제도의 변화 요구가 촉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 ‘이익’은 ‘조명’을 통해 빈부와 귀천이 개인의 노력에 의해 바뀔 수 있다고 보면서도, 그것이 사회 제도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보지 않았다. 곧 사회 제도를 바꾸려면 개인의 능동적인 행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제도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조명’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반만 보장해 주고] 개인이 능동적인 노력으로 본인의 귀천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가)의 문단4].

<보기>의 노예 출신 작가들의 성취	(가)의 이익의 주장
개인의 능동적인 행위 ↓ 사회 제도의 변화 촉구	사회 제도는 최소한의 기반을 보장 ↓ 개인의 능동적인 행위 ↓ [개인은]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

- 3) 즉, 이익은 사회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는 개인의 능동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주장한 바가 없다. 그가 언급한 ‘조명’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 국한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 4)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설명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에게는 본래부터 심사숙고 능력이 없다고 보았고[<보기>-1)], ‘김윤식’은 인간의 타고난 능력에 따라 귀천과 부림이 생기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나>의 문단2].
- ②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제기된 주장은 공리를 극대화하지 않는 제도와 법률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노예를 해방해야 한다는 것이다[<보기>-2)]. 즉, 올바르게 않은 법과 제도는 인간의 권리 보장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박영효’ 역시 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을 통해서만 존재 가능하고, 법을 지킬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나>의 문단1]. 따라서 두 주장은 모두, 법에 의해 인간의 권리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통적인 생각을 전제로 한다.
- [경로 이탈]** <보기>의 ‘법률의 근본 개혁’을 선지의 ‘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과 모순되는 진술로 이해했다면 의미를 오해한 것이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법률의 근본 개혁’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법이 뒷받침되어야 노예 해방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 ③ 유럽 각국의 식민 지배에 따라 노예는 노예 무역의 대상, 곧 사고팔리는 대상이었고[<보기>-3)], 조선 시대의 노비도 주인이 상속·매매할 수 있는 물적 성격을 지녔다[<가>의 문단1].
- ④ ‘노예 해방론’은 노예들의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키자고 주장한 것이고[<보기>-3)], ‘독립 협회’는 자유와 평등이 하늘이 준 권리임을 근거로 노비 소유와 매매를 비판하였다[<나>의 문단3].

[10~13] (사회) 정보 비대칭과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

주목해야 할 지문(2027학년도 6모 대비): 중요도 B

- ‘정보 비대칭’이라는 경제학 개념을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에 입각하여 표현의 규제에 대한 헌법학적 논의로 확장시킨 지문이다. 대부분의 정보가 문단3~5에 몰려 있는데,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에 대한 두 관점이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 연계 양상: 수능특강 114쪽에서 다룬 핵심 개념소인 ‘정보 비대칭’이 해당 지문에서는 부수 개념소로 연계되었다. 이감 간쓸개에서는 ‘정보 비대칭’을 해당 지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차례 설명하였고, 표현에 대한 규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졌는지도 유사한 방식으로 다룬 바가 있다.



고난도 문항 해설 13번

■ 경로 설계

지문의 개념들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야 하는 전형적인 유형의 <보기> 문항이다. 두 사례가 병렬적으로 주어졌으므로, 첫 번째 사례를 통해 ①, ②번 선지를 판단한 후, 두 번째 사례를 통해 나머지 선지들을 판단하는 것이 전략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발문을 통해 ㉠[→ 관련 법률 조항], ㉢[→ 실명확인 사건]에 대해 물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각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 <보기> 설명

- 1) ○ 식품 판매자 ‘갑’은 상품의 효능을 과장한 글과 가상 의료인이 등장하여 효능을 알리는 동영상 상을 생성형 인공 지능을 이용하여 제작한 후, 인터넷 언론사로 분류된 플랫폼 A에 각각 게시하였다.
 - ‘갑’의 행위는 ‘정보 비대칭’을 심화할 수 있는 요인에 해당한다. 문단2에서는 이처럼 온라인 상거래에서 생성형 인공 지능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지적하였다.

[주목] 이때 성급하게 ‘갑’이 ㉠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은 ‘인공 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갑’은 생성형 인공 지능을 활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 제공자일 뿐, 인공 지능을 활용한 제품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다.
- 2) 두 게시물은 모두 익명으로 게시되었고, 생성형 인공 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 이 조건만 보면 ‘갑’이 ㉠을 위반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갑’은 ㉠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위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 3) ○ 선거를 앞두고 □□정당을 추진하려면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을’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위험이 매우 크라며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글을 작성했다. 그 글을 인터넷 언론사로 분류된 플랫폼 B에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실명으로 게시했다. 이후 ‘을’은 게시자 이름을 달리해 같은 취지의 글을 플랫폼 B에 수차례 올렸다.
(단,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법률은 적용하지 않음.)

➡ ‘갑’의 사례가 ㉠과 관련되었다면, ‘을’의 사례는 ㉡와 매우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선거 운동 기간에 실명으로 게시된 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문단5]. 이때 플랫폼 B가 ‘을’의 실명 확인 조치를 하지 않고 ‘을’이 서로 다른 이름으로 수차례 같은 글을 게시할 수 있게 하여, ‘△△법’의 제정을 지지하는 의견을 과도하게 공급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주목] 이 경우, ㉡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양쪽 의견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다수 의견’은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실명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를 제재하는 법률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으므로, 플랫폼 B를 제재해서는 안 된다고 볼 것이다. 반대로 ‘소수 의견’은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에 대한 비판론과 같은 취지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공급된 의견이 민주주의 의사 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플랫폼 B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 정답 설명: ㉡

- 1) ‘을’이 플랫폼 B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플랫폼 B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실명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를 제재하는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문단5].
- 2) 하지만 ㉡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결론은, 해당 법률 규정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곧 ‘다수 의견’이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에 따라, 어떤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지, 정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문단3]. 이러한 결론에 따르면 플랫폼 B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결론>

‘다수 의견’이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에 동의=㉡는 위헌임
 ∴ 플랫폼 B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음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설명

- ① 정부가 ㉠을 통해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제한 대상은 인공 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광고성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을 뿐, 실제로 그러한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는 않다[문단2]. 따라서 플랫폼 A를 ㉠로 제재할 수 없다.
- ② ‘갑’의 동영상은 생성형 인공 지능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의 적용 대상은 인공 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지, 생성형 인공 지능으로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니다[문단2]. 따라서 정보 제공자인 ‘갑’을 ㉠로 제재할 수 없다.

[경로 이탈] 해당 선지가 ①번 선지와 형식이 유사하며, ①번 선지는 플랫폼 A에 대해 묻고 있고 해당 선지는 ‘갑’에 대해 묻고 있다는 점에서, ①번 선지가 적절하다면 반대로 ②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이 작용했을 수 있다. 이처럼 선지를 판단할 때 편견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항상 지문에서 명시적 근거를 찾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③ ‘을’의 글에서 특정 정책 방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사회적·정치적 표현의 경쟁을 통해 표현의 진위와 가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이나[문단3], 이에 상응하는 ㉞에 대한 헌법 재판소 ‘다수 의견’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문단5].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을 오히려 억누르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 ④ ‘을’이 게시자 이름을 서로 다르게 하여 여러 글을 게시한 것이 △△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면, 정책 담당자가 특정 개인이 의도적으로 반복 게시한 의견을 시민의 진정한 의견으로 오인한 사례가 된다[문단4]. 따라서 이는 허위·왜곡 정보가 자율적 방법으로 교정되기 어렵다는 ㉞에 대한 헌법 재판소 ‘소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문단5].

[14~17] (과학·기술) 라플라스 식과 오네소르게 수

주목해야 할 지문(2027학년도 6모 대비): 중요도 A

- 낯선 개념을 순서대로 이해해야 하는 지문이다. 표면 장력으로 인해 액체 방울이 구형을 이룬다는 기본 설명에서 시작하여, 라플라스 식을 제시한 뒤 그 적용 범위를 ‘폐포’에서 ‘잉크젯 프린터’까지 넓힌다. 지문의 초반부에서 산발적으로 다룬 내용의 범위가 후반부로 갈수록 점차 넓어진다는 점에서 독해 부담이 컸을 것이다. 하지만 까다로운 정보는 대부분 문단1에 쏠려 있기 때문에 문단1의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전체적인 지문 이해와 문제 풀이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 연계 양상: 수능특강 31쪽에서 다룬 핵심 개념소인 ‘폐포, 라플라스 법칙, 표면 장력’이 해당 지문에 서도 핵심 개념소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지문에 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실질적인 연계 체감도는 크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이감 간쓸개에서 ‘폐포의 구조’와 ‘표면 장력’을 다루었기 때문에 관련 학습을 충분히 한 수험생들은 해당 지문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고속도 문항 해설 15번

정답 설명: ④

- 1) ㉠(→ 두 기포가 합쳐져 기존의 기포보다 더 큰 기포 하나가 만들어진다)에서 기존의 두 기포는 크기가 서로 다르고 구성 물질은 같은데, 이는 ‘반지름’은 다르고 ‘표면 장력’은 같다는 뜻이다. 표면 장력은 액체 분자 간의 인력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문단1], 구성 물질이 같다면 표면 장력도 같을 것이다.
- 2) 그리고 라플라스 식에 따르면 반지름이 작을수록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가 크므로[문단1], 크기가 작은 기포의 경우 ‘내부 압력-외부 압력’의 값이 크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외부 압력은 다를 이유가 없다. 두 기포가 합쳐지는 상황에서 외부 환경은 당연히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액체 방울의 반지름 $\downarrow \Rightarrow$ '내부 압력 - 외부 압력'의 값 $\uparrow$
 $\therefore$ 반지름이 작은 기포 $\Rightarrow$ 내부 압력 $\uparrow$

- 3) 이때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하였으므로[문단2], 두 기포가 접하여 하나로 합쳐질 경우 기포 안의 공기는 내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할 것이다. 즉, 반지름이 작은 기포에서 큰 기포로 공기가 이동하게 될 것이다.
- 4)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기포는 기존의 기포보다 더 크다고 했다. 즉, 기존의 큰 기포보다도 반지름이 더 커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지름과 반비례 관계인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는 기존의 큰 기포보다 더 작을 것이다.
- 5)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최적 경로] 지문에서는 두 기포가 합쳐져 기존의 기포보다 더 큰 기포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따라서 나중에 생성된 기포는 기존의 큰 기포보다도 반지름이 크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 두 기포는 구성 물질이 같으므로 '표면 장력' 조건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상태에서는 반지름이 유일한 변수가 되고, 반지름이 커질수록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는 작아진다. 그러므로 새롭게 만들어진 기포의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는 처음의 큰 기포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 오답 설명

- ① ㉠에서 기존의 두 기포는 크기가 서로 다르고 구성 물질이 같은데, 이는 '반지름'은 다르고 '표면 장력'은 같다는 뜻이다. 그리고 라플라스 식에 따르면 반지름이 작을수록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가 큰데[문단1], 기존의 두 기포는 같은 환경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므로 외부 압력이 같을 것이다. 따라서 반지름이 작은 기포가 내부 압력이 더 큰데,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하였으므로[문단2] 기포 안의 공기는 반지름이 작은 기포에서 큰 기포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경로 이탈] 전체적으로 추론해야 하는 변수들이 많아서, 해당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기가 까다로웠을 것이다. 해당 선지의 판단 근거가 모호하다고 느껴졌을 수 있지만, ④번 선지가 적절하다는 것이 명확하게 도출되기 때문에 해당 선지를 확인한 후 나머지 선지들까지 꼼꼼히 확인했어야 한다. 실전에서 이처럼 정오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선지를 마주할 수 있는데, 그럴수록 항상 명확한 정답 선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② 표면 장력은 액체 분자 간의 인력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문단1], 구성 물질이 같다면 표면 장력도 같다. 곧, 작은 기포와 큰 기포는 모두 같은 구성 물질로 이루어진 기포이므로 두 기포에서 모두 표면 장력이 작용한다.
- ③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했다[문단2]. 곧, 두 기포 사이에 공기가 이동하는 이유는 내부 압력이 동일하기 때문이 아니라, 압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⑤ 액체 방울에서 방울의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의 합이 내부 압력과 균형을 이룰 때 방울은 그 크기를 유지한다고 했다[문단1]. 곧, 기존의 두 기포와 나중에 생성된 기포 모두 '내부 압력 - 외부 압력 =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이 성립한다.

01. 출제 경향

▶ 출제 작품

세부 영역	문항 수	작품	EBS 연계
현대소설	4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	수능특강 177쪽
현대시 - 수필 (갈래 복합)	6	김명인, 「그 나무」	수능특강 106쪽
		김기택, 「나무」	비연계
		정지용, 「노인과 꽃」	비연계
고전소설	4	「홍길동전」	비연계
고전시가	3	작자 미상, 「만전춘별사」	수능특강 48쪽
		김수장, 「시름을 꺼내 들어~」	비연계
		이정보,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수능특강 55쪽

▶ 총평

난도 '상'에 속하는 문항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매우 쉬웠다. 지문 분량과 선지 길이도 짧아서 시간의 압박도 없었다. 애초에 출제된 작품이 너무 쉽다 보니 문제로 출제할 만한 요소가 부족해서 문항 간 간섭이 심했고, 선지 자체의 논리적 결함에 의해 정오가 판정되는 문항도 많았다. 평정심을 유지하며 차분히 풀어 나갔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연계 평가

- 전체 8작품 중 4작품을 수능특강 연계 작품으로 제시하여 50%의 연계율을 유지했다. 현대소설과 고전 시가는 발췌 부분이 수능특강과 거의 그대로 겹쳐서 실질적인 연계 체감도도 매우 높았다.
- 연계 작품의 갈래 구성에는 변화가 나타났다. 그동안 항상 연계 작품으로 출제되던 고전소설은 비연계 작품으로 제시된 반면, 대부분 비연계 작품으로 출제되던 현대소설은 연계 작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연계 작품인 현대소설[→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은 최근 경향과 달리 내용상 너무 평이한 작품이었고, 고전소설[→ 「홍길동전」]은 비연계 작품이지만 너무 익숙한 작품이어서 변별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전소설은 연계 작품에, 현대소설은 낮은 비연계 작품에 무게를 두는 학습 기조를 크게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 연계 작품인 현대시[→ 김명인, 「그 나무」]는 2011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작품이고, 비연계 작품인 고전소설[→ 「홍길동전」]도 1996학년도와 2014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작품이다. 이러한 출제 양상에 유념하여 이미 출제된 작품도 충실히 학습해 두어야 한다.

02. 작품 분석

[18~21] (현대소설)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

주목해야 할 작품(2027학년도 6모 대비): 중요도 C

- 앞서 총평에서도 설명했듯이, 수능특강과 연계된 작품이지만 최근 평가원이 현대소설 작품을 선정하는 경향과 동떨어진 너무 평이한 작품이다. 게다가 지문이 수능특강의 수록 지문과 70% 이상 겹쳤고 분량도 기존에 비해 짧다. 즉 4문항을 출제하기에는 출제 요소가 부족한 지문이었기 때문에 모든 문항의 난도가 매우 낮았다. 가령 18번과 같은 내용 확인 문항은 일반적으로 지문 전체에 걸쳐 내용을 확인하도록 선지를 구성하지만, 해당 문항은 중략 이전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으로 모든 선지를 구성하였다. 또한 20번의 경우, 독해 난도가 높지 않은 대목을 문제화하려다 보니 대부분의 선지가 선지 진술 자체만으로도 오류임을 판단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선지만 제대로 읽어도 정오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항이 출제되기도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이러한 문항이 출제되었을 때 풀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야 한다.
- <보기> 문항인 21번은 최근 현대소설에서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서술 방식을 다루었지만, <보기> 내용이 너무 쉬웠던 탓에 문제의 취지인 서술 방식이 아니라 내용 이해 지점에서 정답이 도출되었다. 이는 서술 방식을 다루는 문항에서 자주 출제되는 ‘시점’과 ‘초점화’ 등의 개념을 <보기>에서 거론하지 않고 너무 평이한 정보만 제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이지만 내용 이해 지점에서 정답이 도출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22~27] (현대시-수필) (가) 김명인, 「그 나무」 / (나) 김기택, 「나무」 / (다) 정지용, 「노인과 꽃」

주목해야 할 작품(2027학년도 6모 대비): 김명인, 「그 나무」-중요도 B

- (가)와 (나) 모두 아직 생존해 있는 시인들의 작품이다. 작년 수능과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기 작품들의 범주에서 벗어나 비교적 최근 작품들을 선정하는 경향이 이어진 것이다. 다만, (다)에 제시된 현대수필은 일제 강점기 시인인 정지용의 작품이다.
- 22번은 이번 문학 영역에서 가장 높은 오답률을 보인 문항이다. 원래 작품 간 공통점[→ 공통적인 표현상 특징]을 찾는 유형의 문항은 (가)~(다)를 포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밀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번 모의평가의 22번을 특별히 고난도 문항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오답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많은 수험생들이 ③번 선지의 전반부만 읽고 성급하게 정오를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곧 (가)~(다) 모두 ③번 선지의 후반부에 언급된 ‘애상적 분위기’와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선지의 전반부에 진술된 ‘계절’에만 주목하여 해당 선지를 적절하다고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는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항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표현상 특징에만 주목하고 그에 따른 효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겨냥한 선지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선지 구성은 언제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으므로 항상 선지의 내용 전체를 꼼꼼히 확인하여 정오를 판단해야 한다.

- 갈래 복합에서도 문항 간의 간섭이 있었다. 23번의 ③번 선지와 24번의 ④번 선지는 (나)의 같은 지점을 다루면서 23번의 ③번 선지에서는 '부정적 결과'라 진술하고, 24번의 ④번 선지에서는 '긍정적 시간'이라 진술하여 둘 중 하나가 잘못된 진술임이 드러났다.
- 수필에서 난도를 높이는 평가원의 최근 출제 경향에 맞춰, (다)에는 현대수필임에도 예스러운 표현으로 서술된 작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수필 단독 문항인 25번이 <보기> 없이 평이한 독해 문제로 제시된 데다가, 작품의 핵심 지점에서 정답이 도출되도록 구성되어 난도는 매우 낮았다.



고난도 문항 해설 22번

정답 설명: ①

(가)에서는 이미 꽃을 피웠다 지운 '여느 꽃나무'와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늦된 그 나무'의 상황을 대비하여, 늦게라도 삶의 결실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나무가 자유롭게 숨 쉬던 '봄'과 호흡과 움직임을 멈춘 '겨울'의 상황을 대비하여, 겨울의 추위를 견뎌 내며 형성된 나무의 나이테에 새겨진 생명의 역동성을 노래하고 있다. (다)에서는 '나이 이순을 넘어 오히려 여색을 기르는 이'와 '오로지 꽃을 사랑하'는 노인, '호화롭고도 핫한 부끄럼과 건질 수 없는 괴로움으로 수놓은 청춘'과 '청수하고 고고하고 유한하고 완강하기 학과 같은 노년'의 상황 등을 대비하여, 꽃을 심는 노인에게서 발견한 노년의 덕을 예찬하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설명

- ② (가)에서는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늦된 그 나무'를 발견하는 상황에서 화자의 공간 이동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대상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는 대상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화자의 기대, 소망을 드러낸 것이다.]. (나)와 (다)에서는 공간의 이동을 확인할 수 없다.
- ③ (나)에서는 '봄'에서 '겨울', '겨울'에서 '봄'으로의 계절의 흐름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에서는 '이 봄 가기 전 ~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에서, (다)에서는 '봄비를 맞으며 심으신 것이 언제 바람과 햇빛이 더워 오면'에서 계절의 흐름이 나타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가)~(다) 모두 애상적 분위기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④ (가)~(다)에서 말을 주고받는 방식은 나타나 있지 않다. (가)는 '~지요', '~까요?' 등과 같은 표현에서, (다)는 '~이오니까', '~이옵니다' 등과 같은 표현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독백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 ⑤ (가)에서 '저 나무'가 '푸릇한 잎새 매달'고 '가난한 소지'를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상황을 기대하는 것을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다)에서는 '만일 노인 백 세 후에~'라며 가정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28~31] (고전소설) 「홍길동전」

- 누구나 알고 있는 작품의 잘 알려진 대목이 출제되었다. 작년 수능에도 익숙한 작품인 「수궁가」가 출제되었으므로, 익히 알고 있는 기본적인 고전소설 작품에 대한 학습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겠다.
- 「홍길동전」은 여러 판본이 있는데, 이번 모의평가에는 기존에 출제되었던 판본들에 비해 매우 쉬운 판본이 출제되었다. 문제도 매우 평이하였다. 가령 30번은 선생님의 안내로 제시된 정보가 지나치게 쉬운 내용이었다.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항은 <보기>로 제시되는 정보의 수준과 밀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는데, 해당 문항은 이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31번도 정답인 ⑤번 선지가 선지 자체의 논리만으로 정오 판별이 가능했기 때문에 <보기> 문항임에도 난도가 매우 낮았다.

[32~34] (고전시가) (가) 작자 미상, 「만전춘별사」 / (나) 김수장, 「시름을 꺼내 들어~」 / (다) 이정보,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 (가)는 고려가요로 수능특강과 연계된 작품이다. 고려가요는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서경별곡」이 출제된 이후로 오랜만에 출제되었다. (나)와 (다)는 모두 시조인데, 대체로 연시조가 출제되었던 예전의 출제 경향과 달리 최근에는 평시조[→ 단시조]와 사설시조가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가)~(다) 모두 짧고 단순한 작품이기 때문에 3문항만 출제되었음에도 문항 간의 간섭이 상당하다. 가령 32번의 선지들에서 ‘임과 함께하고 싶은’, ‘임이 자신의 믿음을 저버린 이유’, ‘임과의 이별로 인해 홀로 남겨진 슬픔’ 등의 진술이 제시되었는데, 34번의 정답인 ④번 선지에서 ‘임과 하나가 된 현재’라는 상충되는 진술이 제시되었다. 즉, 32번 문항의 선지들과 반대되는 진술이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34번의 정답을 판별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33번의 ③, ④번 선지와 34번의 ②번 선지가 (나)의 같은 지점을 활용하여 두 문항 간의 변별이 확보되지 못했다. 이러한 문항 간의 간섭은 해당 세트의 난도가 낮아지는 원인이 되었다.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01. 출제 경향

올해 6월 모의평가의 화법과 작문은 작년 수능보다 평이했으며, 작년 9월 모의평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다만 작년 수능에서 화법과 작문이 어렵게 출제되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 모의평가의 화법과 작문이 상대적으로 평이했다는 의미이지 매우 쉬웠다는 뜻은 아니다. 지문의 정보량이 많거나 지문에서 다루는 주제가 난해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선지에 사용된 어휘와 표현이 다소 낯설어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각 세트의 구성과 문항 유형은 예년의 출제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동안 화법 - 작문 통합 세트는 화법 단독 세트나 작문 단독 세트와 달리, 새로운 문항 형태를 선보이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올해는 선택과목 체제의 마지막 시행이라는 점 때문인지 새로운 시도가 눈에 띄지 않았고, 지문도 그동안 자주 출제되었던 '대학 - 학생의 초고[→ 제안서]'로 구성되어 지금까지의 출제 패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다. 화법에서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출제되어 온 '발표'가 다시 출제되었고, 작문도 '정보 전달 글'을 바탕으로 전형적인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화법과 작문에서의 EBS 연계 양상을 살펴보면, 화법 - 작문 통합 세트에 제시된 '공원 내 의도적 방치 구역'이라는 소재가 수능특강에서 다룬 '도심 녹지 감소', '공원 조성'이라는 소재와 연계되는 수준에 그쳤다.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해 왔듯이 화법과 작문에서의 EBS 교재 연계는 소재 차원에서 이루어질 뿐, 출제된 지문과 EBS 교재 지문 간의 유사성은 떨어져 실질적으로 연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에 그친다. 따라서 EBS 교재를 활용하여 화법과 작문을 학습할 때에는 지문의 내용을 세세하게 익히기보다, 각 세트에서 다루는 문항의 유형과 출제 패턴에 주목해야 한다.

02. 지문 평가와 문항 분석

[35~37] (화법) 발표: 초와 관련된 전통 기구

- 화법 단독 세트에 올해도 어김없이 '발표'가 출제되었다. '발표'는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지문 형식으로,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이후 무려 9회 연속 출제되고 있다. 이전에는 화법 지문에 '발표, 강연, 연설, 라디오 방송' 등 다양한 유형이 출제되었으나, 최근 3년 동안은 '발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수험생이라면 '발표' 지문과 그에 따른 문항 유형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다만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발표' 지문에 그동안 빠짐없이 출제되었던 '청중의 듣기 활동 이해'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발표' 지문의 문항 구성은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이해(35번)', '시각 자료 활용 혹은 청중 분석(36번)', '청중의 듣기 활동 이해(37번)'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중의 듣기 활동 이해' 문항이 제외되고, 대신 '청중 분석' 문항이 37번에 배치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근거로 '발표'의 출제 경향이 달라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번 모의평가는 예외적인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청중의 듣기 활동 이해’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지만, 평가원에서 꾸준히 출제하는 문항 유형인 만큼 이에 대한 학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 또한 그동안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이해(35번)’ 문항은 전형적인 내용의 선지들로 구성되어 왔으나, 이번에는 다소 낯선 표현이 제시되어 수험생들이 당황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해당 문항은 평가원 기출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된 선지들이 재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출 선지의 표현과 진술 방식을 충분히 학습해 두면 여기서 일부가 변형되거나 돌발적인 요소가 제시되더라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지문에서 초와 관련된 전통 기구인 ‘촛대, 조족등, 청사초롱’에 대해 다루었는데, 내용이 매우 평이하고 정보량도 일반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문 독해에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세트 구성에 변화가 있었지만, 37번에 출제된 ‘청중 분석’ 문항은 그동안 36번으로 꾸준히 출제되었던 유형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8~42] (화법 - 작문 통합) 대화 - 제안서: 공원 내 의도적 방치 구역

- 화법 - 작문 통합 세트에서는 (가) ‘대화’와 (나) ‘학생의 초고[→ 제안서]’가 출제되었다. 학생들이 대화를 나눈 뒤 이를 바탕으로 초고를 작성하는 구성은 화법 - 작문 통합 세트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지문 유형이다. 또한 학생의 초고로 제시된 제안서는 건의문과 성격이 유사한 글로, 평가원 기출을 통해 꾸준히 접할 수 있었던 익숙한 유형이다. 따라서 해당 지문의 구성은 수험생들에게 비교적 친숙하게 느껴졌을 것이며, 지문의 내용 역시 비교적 평이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화법 - 작문 통합 세트의 지문이 익숙한 유형과 무난한 난도로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문항은 ‘대화의 맥락 이해(38번)’, ‘인터뷰에서의 의사소통 방식 이해(39번)’, ‘학생의 생각이 글에 반영된 양상 파악(40번)’, ‘제안서의 글쓰기 방식 이해(41번)’, ‘고쳐 쓰기에 반영된 조언 추론(42번)’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문항 구성은 기존에 자주 출제되었던 형태로, 이감 모의고사를 통해 반복 학습을 해 온 수험생이라면 문항 구성과 관련하여 크게 생소함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39번의 경우 (가)의 대화 후 학생들이 전문가를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상황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방식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문항의 형태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해당 문항의 본질은 결국 ‘대화에서의 의사소통 방식 이해’를 평가하는 데에 있으며, 선지의 내용과 표현은 익숙한 형태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문항을 해결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화법 - 작문 통합 세트에서는 그동안 화법 지문인 (가)와 작문 지문인 (나)를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이해해야 하는 40번이 3점 문항으로 출제되며 높은 오답률을 기록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당 문항이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었고, 42번의 오답률이 다소 높게 나왔다. 42번과 같은 고쳐 쓰기 문항은 이전에는 비교적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쉬운 문항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소 복잡하게 출제되어 변별력을 확보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해당 유형의 문항을 반복적으로 풀어 보며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에는 40번이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지만, 이 유형의 문항은 화법과 작문에서 매년 높은 오답률을 기록하는 만큼, 꼼꼼한 문제 풀이 연습이 요구된다.



■ 정답 설명 : ④

(나)의 문단5는 학생들의 제안, 곧 의도적 방치 구역 조성이 실현되었을 때 예상되는 기대 효과를 담고 있다. 문단5와 고쳐 쓴 글을 비교해 보면, ‘이 구역의 풍부한 생태계가 주변 숲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숲과 숲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할 것’이라는 내용과 ‘자연스럽게 조성된 생태계를 관찰하는’이라는 내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전자는 역동적인 생태계 구역 확장이라는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을 보충한 것이고, 후자는 시민들이 교육의 장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을 보충한 것이다. 따라서 역동적인 생태계 구역 확장과 교육의 장으로서의 사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이를 보충하는 내용을 추가하면 좋겠다는 것이 초고를 고쳐 쓰기 위해 동아리 학생들이 했을 조언으로 가장 적절하다.

■ 오답 설명

- ① (나)의 문단5에는 ‘저희 제안이 실현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됩니다.’라고 제안의 기대 효과를 밝히는 문단의 목적이 이미 드러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이 드러나 있지 않으니 도입 문장을 추가하면 좋겠다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나)의 문단5에는 기대 효과에 대한 예측이 의도적 방치 구역 조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입장에서만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고쳐 쓴 글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기대 효과에 대한 예측이 특정 입장만을 반영하고 있으니 다양한 관점을 밝히는 내용을 추가하면 좋겠다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
- ③ (나)의 문단5에는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혜택을 누리는 대상이 생태계와 시민들로 상정되어 있으며, 이는 고쳐 쓴 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혜택을 누리는 대상이 드러나지 않아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문장을 추가하면 좋겠다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
- ⑤ (나)의 문단5에는 의도적 방치 구역의 안정화가 가져올 효과에 대한 설명이 드러나 있으며, 이는 고쳐 쓴 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안정적인 상태의 조건을 밝히는 내용이 고쳐 쓴 글에 추가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의도적 방치 구역의 안정화가 가져올 효과에 대한 설명이 드러나지 않아 안정적인 상태의 조건을 밝히는 내용을 추가하면 좋겠다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

[43~45] (작문) 정보 전달 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작문 단독 세트에는 일반적으로 학생이 교지나 학교 신문에 게재하기 위해 작성한 초고 형식의 글이 지문으로 제시된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교지 게재를 목적으로 작성된 학생의 초고가 작문 지문으로 제시되었다. 지문에 담긴 정보량 자체는 예년에 비해 적은 편이었지만, 지문에서 다루는 내용이 수험생들에게 다소 생소한 것이었기 때문에 독해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지문은 기존의 기술이 적용된 동력집중식 고속열차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를 비교하며 이해해야 하는 구조로 제시되었다. 즉 단순히 개별 대상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두 대상의 차이점을 파악해야 했기 때문에 독해 부담이 다소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문에서 지문 독해의 난도를 높여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평가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문항 구성은 ‘초고에 반영된 글쓰기 계획 파악(43번)’, ‘초고의 끝부분에 들어갈 내용 추론(44번)’, ‘초고를 보완하기 위한 자료 활용 방안 이해(45번)’로, 작문 세트에서 전형적으로 출제되었던 문항 유형들이 이번에도 출제되었다. 따라서 문항 유형이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자료 활용 방안을 묻는 45번 문항은 매년 오답률이 높은 편인데, 올해는 예년보다 더 높은 65%의 오답률을 기록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지문 내용의 생소함에 더해, 해당 문항의 <보기>에 등장한 생소한 개념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답인 ④번 선지에 제시된 ‘편성 증가’와 지문의 문단4에 언급된 ‘동일 편성 기준으로 좌석 수도 많아져’라는 진술 간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 점 역시 높은 오답률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작문 세트의 45번은 매년 높은 오답률을 보이는 만큼, 수험생들은 국어 영역의 마지막 문항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문과 <보기>, 그리고 각 선지의 내용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고난도 문항 해설 45번

정답 설명 : ④

<보기>의 ㄱ-2는 동력분산식 고속열차가 동력집중식 고속열차보다 ‘1편성 기준’ 좌석 수가 136석 더 많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그리고 ㄴ은 동력 장치가 없는 운전실 객차에도 좌석을 배치하여 좌석 수를 늘린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의 사례를 보여 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ㄱ-2와 ㄴ을 활용하면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의 경우 기존의 동력집중식 고속열차와 달리 운전실 객차에도 좌석을 배치할 수 있어, 1편성 기준 좌석 수를 늘려 운송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편성 수’가 증가한 결과가 아니라 동일한 편성 내에서 ‘좌석 수’가 증가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편성 증가로 인해 운송 효율성이 높아진 근거로 문단4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욱이 문단4에서는 ‘동일 편성 기준으로 좌석 수도 많아져 운송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④번 선지의 자료 활용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설명

- ① <보기>의 ㄱ-1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고속열차 이용객 수가 증가한 수치를 보여 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라는 내용이 제시된 문단1에 고속열차 이용객의 증가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로 보강하려는 방안은 적절하다.
- ② <보기>의 ㄴ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의 객실 바닥에 흡음재를 설치하고 플로팅 플로어 기술을 적용하여,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의 단점인 소음과 진동을 줄인 사례를 보여 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발전된 기술을 적용해 소음과 진동을 감소시켜 동력분산식의 단점을 줄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제시된 문단5에 동력분산식의 단점인 소음과 진동을 줄인 기술의 예시로 추가하려는 방안은 적절하다.
- ③ <보기>의 ㄷ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가 동력 객차에 축중을 분산시켜 최대 축중이 가벼우며, 그 결과 최대 축중이 무거운 동력집중식 고속열차보다 선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동력집중식 고속열차의 최대 축중이 무거워 열차 주행 중 선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내용을 마련하고, 이를 동력집중식의 경우 ‘선로 손상에 따른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내용이 제시된 문단2에 선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근거로 보강하려는 방안은 적절하다.

- ⑤ <보기>의 ㄱ-2는 동력분산식 고속열차가 동력집중식 고속열차보다 가속 성능이 우수함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또한 ㄴ은 우리나라의 경우 역간 거리가 짧아 정차 횟수가 많은데, 이 경우 고속열차의 가속 성능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따라서 ㄱ-2와 ㄴ을 활용하여 정차 횟수가 많을 때 동력분산식의 가속 성능이 동력집중식보다 유리하다는 내용을 마련하고, 이를 동력분산식이 '국내 고속열차 운행 환경에서 장점으로 작용한다'라는 내용이 제시된 문단3에 국내 고속열차 운행 환경에 동력분산식이 더 적합하다는 근거로 보강하려는 방안은 적절하다.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01. 출제 경향

▶ 언어 총평

언어는 음운론 및 형태론, 통사론, 국어사에서 고루 출제되었으며 최근의 출제 경향에 따라 지문 연계 2문항과 단독 문제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출제된 문항의 난도는 작년 수능에 비해 낮았으며, 수험생들이 개념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지문의 경우 변이음과 이형태 개념을 통합적으로 설명하여 다소 정보량이 많았으나, 문제를 푸는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단독 문제의 경우 이전에 출제되었던 문항의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문법 개념을 다루었다. 다만, 문법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 변별력을 주었다.

▶ 매체 총평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매체는 2022학년도에 선택과목 체제가 도입된 이후로 가장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매체는 일반적으로 오답률이 높게 형성되는 언어와 함께 선택과목을 구성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화법과 작문과의 난이도의 균형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적어도 한 문항은 30% 정도의 오답률을 기록하며 일정 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해 왔다. 그런데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오답률이 대부분 한 자릿수에 머물 정도로 매우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이는 그동안 평가원에서 반복적으로 출제했던 익숙한 매체 자료들이 출제되었고, 제시된 지문의 정보량도 일반적인 수준이었으며 내용 또한 비교적 단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까지 매체는 선지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까다롭게 묻는 방식으로 변별력을 확보해 온 만큼, 이번 모의평가가 평이하게 출제되었다고 해서 선지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습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감 모의고사는 이러한 평가원의 출제 경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꾸준히 연습한다면 문제 풀이 과정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매체 자료로는 ‘라디오 방송’, ‘블로그’, ‘화상 회의’, ‘영상 제작 계획’ 등이 제시되어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가 균형 있게 출제되었다. 그동안 평가원은 다양한 형태의 매체 자료를 제시하며 매체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해를 평가해 왔다. 그러나 올해 수능을 끝으로 선택과목 체제가 종료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인지, 이번 시험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지 않았다. 덕분에 수험생들은 지문에서 생소함을 거의 느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항 역시 그동안 매체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어 온 유형들로 구성되어 있어 문제 풀이 과정에서의 부담도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매체에서의 EBS 연계 양상을 살펴보면, 44~45번 세트에 제시된 ‘세계 기록 유산’이라는 소재가 수능특강에서 다룬 ‘장 담그기,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라는 소재와 연계되는 수준에 그쳤다. 따라서 연계를 기대하며 EBS 교재의 지문 내용을 중심으로 매체 영역을 학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다만 EBS 교재에는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 비해 훨씬 다양한 종류의 매체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여러 매체 자료의 특성과 표현 방식, 문항 출제 패턴 등을 파악해 두면 수능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02. 지문 평가와 문항 분석

[35~36] (언어) 음운론, 형태론

- 변이음과 이형태의 개념을 연결한 지문이 제시되었다. 정보량은 다소 많았지만, 음운론과 형태론의 기초 이론을 다루고 있으며 예시가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어 독해에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35번은 지문에 제시된 여러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했는지를 묻는 내용 일치 유형의 문항으로, 지문의 내용을 차분히 확인했다면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평이한 수준이었다. 36번은 지문에 제시된 변이음과 자동적·비자동적 교체 개념을 <자료 1>의 음운 실현 양상과 <자료 2>의 형태소 교체 예시에 적용해야 하는 문항이다. 지문의 개념을 <자료 1>과 <자료 2>에 차근차근 적용하여 제시된 단어들을 분석했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7] (언어) 통사론

- 문장에 나타난 문장 성분, 문법 요소, 문장의 짜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복합적으로 평가하는 문항으로, 다양한 문법 개념을 제시된 문장에 정확히 적용할 수 있어야 했다. 하나의 문장에 들어 있는 여러 문법적 요소를 동시에 다각도로 분석해야 하기에 변별력을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고난도 문항 해설 37번

■ 정답 설명 : ㉡

㉡[→ ‘건설한 회사에서 아주 새 제품을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에는 부사 ‘아주’가 부사어로 쓰여, 관형어로 쓰인 관형사 ‘새’를 꾸며 주고 있다. 그러나 ㉡[→ ‘퇴근한 나는 봉사 활동에 참여했지만 그는 곧장 집에 가 버렸다.’]에는 관형어를 꾸며 주는 부사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에는 명사구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봉사 활동에’, 부사 ‘곧장’,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집에’가 부사어로 쓰였는데, 이때 ‘봉사 활동에’는 앞 절의 서술어인 ‘참여했지만’을 꾸며 주고 있고, ‘곧장’과 ‘집에’는 뒤 절의 서술어인 ‘가 버렸다’를 꾸며 주고 있다.

■ 오답 설명

- ① ㉠[→ ‘파랗던 하늘이 저녁이 되자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다.’]의 ‘붉은’에 쓰인 관형사형 어미 ‘-은’은 형용사와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문법 요소이다. 또한 ㉡[→ ‘건설한 회사에서 아주 새 제품을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의 ‘건설한’에 쓰인 관형사형 어미 ‘-ㄴ’은 형용사와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문법 요소이다. 따라서 ㉠과 ㉡은 모두, 관형사형 어미로 현재 시제를 표현한 문장에 해당한다.
- ③ ㉢[→ ‘퇴근한 나는 봉사 활동에 참여했지만 그는 곧장 집에 가 버렸다.’]에는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말하고 그 뒤 절에 그와 반대되는 내용을 이어 말할 때 사용하는 연결 어미인 ‘-지만’이 쓰였다. 이때 ‘-지만’은 연결된 두 절이 대조의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대등적 연결 어미이다. 또한 ㉣[→ ‘과일은 햇살에 익어 가고 마당에는 보랏빛 수국이 가득했다.’]에는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대등하게 벌여 놓을 때 사용하는 연결 어미인 ‘-고’가 쓰였다.

이때 ‘-고’는 연결된 두 절이 나열의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대등적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과 ㉡은 모두, 대등적 연결 어미로 겹문장을 나타낸 문장에 해당한다.

- ④ ㉠[→ ‘파랗던 하늘이 저녁이 되자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다.’]에서는 본용언 ‘물들다’와 보조 용언 ‘있다’를 결합한 ‘물들고 있다’를, ㉡[→ ‘과일은 햇살에 익어 가고 마당에는 보랏빛 수국이 가득했다.’]에서는 본용언 ‘익다’와 보조 용언 ‘가다’를 결합한 ‘익어 가고’를 사용하여 진행상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파랗던 하늘이 저녁이 되자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다.’]의 ‘물들고(물들다)’는 ‘빛깔이 스미거나 옮겨서 묻다.’의 의미를 지니는 동사로 부사어 ‘노을빛으로’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 ‘건실한 회사에서 아주 새 제품을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의 ‘제공한다(제공하다)’는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치다.’의 의미를 지니는 동사로 부사어 ‘고객에게’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 ‘퇴근한 나는 봉사 활동에 참여했지만 그는 곧장 집에 가 버렸다.’]의 ‘참여했지만(참여하다)’은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동사로 부사어 ‘봉사 활동에’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또한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동사인 ‘가(가다)’ 역시 부사어 ‘집에’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 ‘과일은 햇살에 익어 가고 마당에는 보랏빛 수국이 가득했다.’]의 ‘가득했다(가득하다)’는 ‘분량이나 수효 따위가 어떤 범위나 한도에 꽉 찬 상태에 있다.’의 의미를 지니는 형용사로 부사어 ‘마당에는’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따라서 필수적 부사어는 ㉠~㉣ 모두에 한 개 이상씩 포함되어 있다.

[38] (언어) 국어사

- 중세 국어의 의문문 체계, 즉 의문사가 있을 때 쓰이는 설명 의문문과 의문사가 없을 때 쓰이는 판정 의문문에 사용되는 종결 어미 및 보조사, 그리고 주어가 2인칭일 때 사용되는 특수 종결 어미를 탐구하는 문항이다. 의문사의 유무와 주어의 인칭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9] (언어) 형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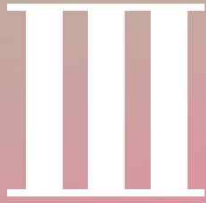
- 단어의 구성 요소를 둘로 나누는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을 바탕으로, 파생과 합성이 일어나는 선후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문항이다. 곧 단어의 의미 구조를 고려하여 제시된 단어들을 분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단어가 가장 먼저 둘로 나누어지는 지점의 결합 층위만 정확히 분석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0~43] (언어-매체 통합) 라디오 방송-블로그: 기상 정보 수집 장비

- (가)에서는 기상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장비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라디오 방송’을 제시하였고, (나)에서는 방송의 내용을 정리한 학생의 ‘블로그’ 글을 제시하였다. 라디오 방송은 이전에 출제된 적이 있었고 특히 블로그는 평가원 시험에서 여러 차례 매체 자료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해당 매체들에 대해 생소함을 느끼진 않았을 것이다. 또한 (가)와 (나) 모두 정보량이 많지 않고 내용도 평이해서 독해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문항 구성 역시 ‘매체에서의 의사소통 방식 파악(40번)’, ‘매체 자료의 비판적 수용(41번)’, ‘매체 자료의 생산 이해(42번)’, ‘매체 언어의 표현 방식 이해(43번)’로, 평가원에서 반복적으로 출제해 온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선지의 정보량과 난도까지 평이하게 구성되어 수험생들이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44~45] (매체) 화상 회의-영상 제작 계획: 세계 기록 유산

- (가)에서는 문화 탐구 동아리 학생들이 세계 기록 유산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진행한 ‘화상 회의’를 제시하고, (나)에서는 해당 회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영상 제작 계획’을 제시하였다. 화상 회의와 영상 제작 계획 역시 평가원 시험에서 이미 몇 차례 출제된 적이 있는 매체 자료이므로, 여기에서 느껴지는 생소함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지문의 정보량이 적절한 수준이고, 내용 역시 평이했기 때문에 지문 독해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 문항 구성 역시 ‘매체 자료의 특성 파악(44번)’, ‘매체 자료의 생산 방식 이해(45번)’로, 평가원에서 반복적으로 출제해 온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어 문제 풀이에 대한 부담도 적었을 것이다. 또한 이 문항들은 정답 선지가 비교적 분명하게 도출되고, 정답 선지와 경쟁할 만한 매력적인 오답 선지도 눈에 띄지 않아 매우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계속해서 설명했듯이 이번 모의평가의 난도를 매체 영역의 일반적인 수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와 이감의 연계 양상

독서

세부 영역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독서론 [1~3]	SQ3R	수능특강 9쪽	2026 이감 시즌2 2차 2026 이감 ON 3차
인문 통합 [4~9]	노비 문제에 대한 이익의 주장과 민권에 대한 논의	수능특강 38쪽 (이감 중요도 B)	2026 간쓸개 시즌2 5차 2026 월간 간쓸개 02
사회 [10~13]	정보 비대칭과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	수능특강 114쪽 (이감 중요도 B)	2026 간쓸개 시즌1 6차 2026 간쓸개 시즌2 2차 2026 월간 간쓸개 01
과학·기술 [14~17]	리플라스 식과 오네소르게 수	수능특강 31쪽 (이감 중요도 A)	2026 간쓸개 시즌3 4차 2026 스페셜 간쓸개 과학·기술

문학

세부 영역	작품	EBS 연계	이감 연계
현대소설 [18~21]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	수능특강 177쪽 (이감 중요도 C)	-
현대시 - 수필 (갈래 복합) [22~27]	(가) 김명인, 「그 나무」 (나) 김기택, 「나무」 (다) 정지용, 「노인과 꽃」	수능특강 106쪽 (이감 중요도 B) 비연계 비연계	2026 간쓸개 시즌3 4차
고전소설 [28~31]	「홍길동전」	비연계	-
고전시가 [32~34]	(가) 작자 미상, 「만전춘별사」 (나) 김수장, 「시름을 꺼내 들어~」 (다) 이정보,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수능특강 48쪽 비연계 수능특강 55쪽	2026 간쓸개 시즌3 2차 2026 월간 간쓸개 02

화법과 작문

세부 영역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화법 [35~37]	초와 관련된 전통 기구 (발표)	비연계	2026 이감 시즌2 1차 2026 이감 시즌3 1차 2026 이감 ON 2차 2026 이감 ON 4차 2026 화법과 작문 N제
화법-작문 통합 [38~42]	공원 내 의도적 방치 구역 (대화 - 제안서)	수능특강 27쪽 수능특강 143쪽	2026 이감 시즌3 3차 2026 이감 시즌3 4차 2026 화법과 작문 N제
작문 [43~45]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정보 전달 글)	비연계	2026 이감 시즌2 2차 2026 이감 시즌3 1차 2026 이감 ON 3차 2026 이감 ON 4차 2026 화법과 작문 N제

언어와 매체

세부 영역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음운론, 형태론 [35~36]	변이음, 이형태	수능특강 52쪽 수능특강 95쪽	2026 언어와 매체 N제
통사론 [37]	시제, 겹문장, 동작상, 관형어, 부사어(필수 부사어)	수능특강 72쪽 수능특강 106쪽	2026 이감 시즌3 3차 2026 이감 시즌3 4차 2026 언어와 매체 N제
국어사 [38]	중세 국어의 의문문	수능특강 39쪽	2026 이감 시즌2 1차 2026 이감 ON 2차 2026 언어와 매체 N제
형태론 [39]	직접 구성 요소	수능특강 60쪽	2026 이감 시즌3 4차 2026 언어와 매체 N제
언어-매체 통합 [40~43]	기상 정보 수집 장비 (라디오 방송 - 블로그)	비연계	2026 이감 시즌2 2차 2026 이감 ON 3차 2026 언어와 매체 N제
매체 [44~45]	세계 기록 유산 (화상 회의 - 영상 제작 계획)	수능특강 242쪽	2026 이감 시즌3 1차 2026 이감 ON 4차 2026 언어와 매체 N제

| 독서론 | 중심 소재를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

- 평가원 지문과 이감 모의고사 지문 모두 읽기 전략인 'SQ3R'을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했음
- 특히 '읽기(자세히 읽기)' 단계를 기준으로 '훑어보기, 질문하기'와 '암송하기(되새기기), 재검토하기(다시 보기)'를 구분하여 제시했음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학습을 위한 읽기’는 글의 내용에 해당하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의 읽기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표적인 읽기 전략으로는 SQ3R이 있다.

SQ3R은 ‘훑어보기’, ‘질문하기’, ‘읽기’, ‘암송하기’, ‘재검토하기’의 다섯 활동으로 진행된다. 먼저 제목, 목차, 요약문 등을 훑어보면서 글의 핵심 내용을 개관하고 예측한다. 그리고 훑어보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질문을 만든다. 다음으로, 만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며 글을 읽는다. 읽은 후에는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 보는 과정을 통해 기억하며 암송한다. 마지막으로, 글의 전체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고, 읽은 내용을 재검토한다.

이 전략의 읽기 전 활동인 ‘훑어보기’와 ‘질문하기’는 능동적 읽기에서 매우 중요하다. 훑어보기는 글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다. 독자는 대강의 내용을 훑어봄으로써 증점적으로 읽어야 할 내용을 찾고,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배경지식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글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져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읽은 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된다. 질문하기는 읽는 목적을 고려하여 질문을 만드는 것이다. 읽는 과정에서 독자가 질문을 활용하면, 답을 찾으며 읽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더 잘 선별할 수 있게 된다. 또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내용에 집중하여 읽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질문하기의 효과는 타인이 질문을 제공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질문을 활용하여 읽으면 독자의 능동성은 더욱 강화된다.

2026 이감 모의고사 시즌2 2차 2026 이감 ON 모의고사 3차

스키마는 독서에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하므로, 효과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스키마를 의도적으로 활성화하고 이를 독서 과정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독서 전략으로 SQ3R이 있다. 이는 훑어보기, 질문하기, 자세히 읽기, 되새기기, 다시 보기의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SQ3R에서 독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훑어보기 단계와 질문하기 단계는 본격적인 독서에 앞서 스키마를 의도적으로 활성화하는 과정이다. 독자는 훑어보기 단계에서 제목, 소재목, 삽화, 도표 등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스키마를 떠올리고, 질문하기 단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에서 파악해야 할 내용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 봄으로써 본격적인 독서를 준비한다.

활성화된 스키마는 자세히 읽기 단계에서 텍스트의 내용과 본격적으로 상호 작용 하며, 이 과정에서 얻은 새로운 정보는 자연스럽게 기존 스키마에 통합되거나 스키마의 수정을 촉발한다. 독서 후반부에 해당하는 되새기기 단계와 다시 보기 단계는 이러한 상호 작용의 결과를 정착시키는 단계이다. 이들 단계에서 독자는 읽은 내용을 다시 떠올리거나 몇몇 부분을 다시 보면서 주요 내용을 자신의 스키마에 맞게 의식적으로 편집 또는 요약한다. 이러한 단계들을 거쳐 독자가 마무리되면 독서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확장된 스키마가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 이처럼 SQ3R은 독자가 스키마를 독서의 전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략이다.

| 인문 통합 | 중심 소재를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

- 평가원 지문과 간썰개 지문 모두 조선 후기 '노비' 문제에 대한 사상가들의 인식을 다루었음
- 다만 평가원 지문이 조선 후기 '노비' 문제에 대한 당대 양반들과 이익의 관점을 설명했다면, 간썰개 지문은 그 연장선에서 조선 후기의 신분제 동요에 대한 박지원의 관점, '노비' 문제에 대한 송시열의 개혁안 등을 설명했음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가)

조선 시대의 노비는 주인이 상속·매매할 수 있는 물적 성격을 지녔지만, 재산권 및 소송권 등 자유와 권리도 부분적으로 인정 받았다. 조선 전기에 증가하던 노비의 수는 왜란과 호란 이후에 감소 추세를 보였고, 여러 사정으로 양인과 노비의 신분 격차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노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졌고, 이전에는 찾기 어려운 ㉠ 양반들의 노비에 대한 글로 구체화되었다.

양반들은 노비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행적을 기록한 여러 글을 통해 노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표면화하였다. 충성스러운 노비를 충(忠)이라는 성리학적 이념을 투사하여 칭송하였고, 노비를 작고 연약한 존재로 형상화한 시선은 주인이 노비를 대하는 온정적 차원에 머물렀다. 노비의 외연한 행동과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노비의 불평 등한 여건과 처지는 거론하지 않았다. 빈한한 주인을 위해 희생하는 노비의 예환에 관심을 ㉡ 두면서 노비에 대한 미안한 심경은 드러냈지만 신분 질서를 정면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러한 양반들의 시각과 달리, 실학자 ㉢ 이익(李瀼)은 다른 각도에서 노비 문제에 접근하였다. 그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명(天命), 천체의 운행에 따라 길흉을 점치는 영역인 성명(星命), 시세(時勢)에 따라 인간의 힘이 참여하는 조명(造命)으로 운명을 나누었다. 천명과 성명은 인간이 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 자연 이치로 간주하고, 조명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빈부, 귀천 등을 바꾸어 가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조명의 대상을 왕과 고관대각으로 한정했던 이전 학자들의 논의와 달리, 노비를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였다.

그는 사회의 전 구성원이 주어진 상황에서 각자의 노력으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신분은 세습이 아닌 개인의 재주와 덕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그는, 노비의 매매와 세습을 금지하면 노비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그는 양반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기회를 개방하고자 하였다. 그에게 인간 삶의 변화는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고, 국가의 역할은 조명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반을 보장해 주고 결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었다.

2026 간썰개 시즌2 5차 2026 월간 간썰개 02

(나)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신분제가 동요하고 새로운 사회 계층이 등장하는 등 급격한 사회 변화와 혼란을 겪고 있던 조선 후기의 상황에서, 박지원은 정통 성리학적 명분론만으로 이러한 혼란을 설명하고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박지원의 「명론」이라는 글을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순자의 정명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조선 사회에 접목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대사상이인 율곡 이이를 계승하며 이상 사회를 구현하려 한 송시열은, 이러한 관점하에 효종과 효종비의 죽음에 효종의 계모인 조 대비가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하는지에 관한 예송 논쟁에서 ㉠ 왕가와 민간의 상례(喪禮)를 굳이 구별하려 하지 않았다. 또한 신분을 구분 짓는 중요한 기준인 역의 부담으로 노비에게 주어지는 노비역과 양인에게 주어지는 균역이 있는데, 이들을 균등히 하는 개혁을 요구하면서 나아가 노비종모종량법과 양반호포법의 시행도 주장하였다.

율곡 이이가 제안했던 노비종모종량법은 어머니가 양인이면 아버지가 노비라도 자식은 양인이 되도록하는 법이다. 송시열은 현종 10년(1669)에 이를 현종에게 간언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 법의 시행으로 남자 노비가 양인 부인을 얻어 자식이 양인의 신분을 얻도록 함으로써 점차 노비가 사라져 갈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는 각 백성의 집에 역 부담이 큰 노비를 줄여 자영농으로 성장할 길을 열어 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다만 서인이 실각하고 송시열이 유배를 가자,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폐단을 문제 삼은 영의정 허적의 주장에 따라 숙종 4년(1678)에 폐지되었다. 허적이 이끄는 남인 세력은 '노비와 주인의 관계는 신하와 임금의 관계와 같다.'라는 명분론을 내세워 이 법에 반대하였던 것이다.

| 사회 | 중심 소재를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

- 평가원 지문과 간쓸개 지문 모두 '정보 비대칭'과 그에 따른 '역선택 문제'를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했음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26 간쓸개 시즌1 6차
2026 간쓸개 시즌2 2차
2026 월간 간쓸개 01

완전경쟁시장의 경제 주체는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되지만, 현실의 경제 주체는 정보 획득을 위한 투입 비용의 차이에 따라 취득 정보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 처한다.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황은 거래의 한쪽이 상대방에 비해 정보를 더 적게 가지는 경우이고, 이때 정보를 적게 가진 경제 주체는 낮은 품질의 상품을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가격에 선택하는 **역선택 문제**에 직면한다.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법에 근거하여 시장에 개입한다. 예컨대 정부는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성분이나 효능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을 공급자에게 강제한다.

정보 비대칭 문제는 온라인 상거래에서도 발생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되면서 이용자가 정보의 진위나 의도, 편향 등의 여부를 알기 어려운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 관련 법률 조항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제하였다. 하지만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 제공자와 광고성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온라인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정부 개입에 관하여 엇갈리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적·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한 정부 개입 여부를 두고도 구분되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이 별다른 비용 없이 거래와 관련된 완전한 정보를 얻는다고 간주한다. 이처럼 경제 주체들이 동일한 정보를 지니면서 더불어 자유로운 경쟁 상태에 놓인다면 경제적 자원은 시장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대체로 상품의 속성에 대해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듯이 현실에서 경제 주체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대부분 ㉡ 비대칭적이다. 또한 구매자가 판매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현실에서의 정보 배분은 대칭적이지 않으며 복잡한 양상을 띤다. 경제학자 애컬로프에 따르면 이 같은 **정보 비대칭**은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상태를 뜻하는 시장 실패를 야기한다.

그런데 구매자가 중고차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상등품과 하등품이 50%씩 섞여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을 때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초래된다. 구매자는 상등품과 하등품의 평가액을 평균한 450만 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겠으나, 상등품을 소유한 판매자는 자신이 판단한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 가격에 거래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로 인해 시장에는 하등품만 남게 되고, 중고차 구매자는 ㉢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하게 되는 **역선택**의 상황에 처한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 중고차 시장은 제 기능을

정보 비대칭이란 거래나 계약의 당사자 중 한쪽만 정보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쪽은 정보가 없거나 부족한 상황을 의미한다. 정보 비대칭은 시장 경제의 비효율성을 ㉤ 야기하는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는 데, 도덕적 해이가 대표적이다. 도덕적 해이는 '감춰진 행동'에 기인한 정보 비대칭의 상황에서 발생한다. 계약이 성사되기 전에 제품의 속성이나 상태에 대해 한쪽이 잘 모르는 경우인 '감춰진 속성'에 의한 정보 비대칭과 달리, '감춰진 행동'에 의한 정보 비대칭은 계약이 성사된 후 계약의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 과학·기술 | 중심 소재를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

- 평가원 지문과 간쓸개 지문 모두 ‘표면 장력’과 ‘폐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다루었음
- 다만 평가원 지문은 라플라스 식과 관련하여 해당 개념들을 설명했다면, 간쓸개 지문은 무차원 수,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등과 관련하여 해당 개념들을 설명했음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26 간쓸개 시즌3 4차 2026 스페셜 간쓸개 과학·기술

우리는 물방울, 비눗방울, 기포 등이 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구형은 동일한 부피에서 표면적이 최소인 형태인데 이는 액체 분자 간의 인력으로 ㉠ 발생하는 표면 장력의 작용 때문이다. 액체 방울에서 방울의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의 합이 내부 압력과 균형을 이룰 때 방울은 그 크기를 유지한다. 이때 내부 압력은 액체 방울을 팽창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은 액체 방울을 수축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들 간의 관계는 라플라스 식으로 ㉡ 표현할 수 있다. 이 식에 따르면 액체 방울의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는 구형의 액체 방울에서 표면 장력에 정비례하고 액체 방울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라플라스 식은 사람이 호흡할 때 폐포에 작용하는 압력과 표면 장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유용하다. 폐포에는 그 내부의 압력과 인체 외부 공기의 압력의 차이로 인해 공기가 드나든다. 이는 공기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액체층의 표면 장력은 폐포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지질과 단백질로 ㉢ 구성된 계면 활성제가 분비되어 액체층의 표면 장력을 낮춘다. 이에 따라 폐포의 확장이 쉬워진다.

라플라스 식은 두 기포가 합쳐지는 경우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크기가 서로 다르고 구성 물질은 같은 두 기포가 접하여 하나로 합쳐질 때 한쪽 기포에서 다른 쪽 기포로 공기가 이동한다. 이 결과로 ㉣ 두 기포가 합쳐져 기존의 기포보다 더 큰 기포 하나가 만들어진다.

액적은 바닥에 떨어진 직후에 바닥에 붙는 고착, 단일한 액적을 유지하면서 튀어 오르는 반발, 그리고 여러 개의 작은 액적들인 위성 액적들로 분리되면서 튀어 오르는 분산 등의 거동을 보인다. 바닥과 충돌한 액적의 고착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액적의 질량에 비례하는 ㉤ 중력을 ㉥ 표면 장력으로 나눈 무차원 수인 본드수를 사용한다. 표면 장력은 액적의 표면적을 최소화하여 구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힘으로, 액적 표면의 분자들이 그 내부의 분자들에 의해 끌어당겨져 액적 표면이 중심 방향으로 수축하기 때문에 유발된다. 표면 장력은 액체 분자들 간의 인력의 크기에 비례하여 분자의 종류에 따라 고유한 값을 가진다. 구형의 액적이 바닥과 충돌하는 순간에는 일시적으로 옆으로 퍼진 모양을 띠지만 이내 표면 장력으로 인해 ㉦ 구형으로 복원되려는 경향성이 나타난다. 이때 ㉧ 본드수가 작은 액적일수록 구형에 더 가까운 모양으로 복원된다.

폐에는 수억 개에 달하는 폐포들이 있다. 폐포는 주머니 모양을 띠며, 모세 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혈액과 공기 간의 산소 및 이산화 탄소 교환 기능을 한다. 체외로부터 흡입된 공기가 폐포에 도달하면 공기 중의 산소는 모세 혈관으로 확산되어 혈액을 따라 몸의 세포로 전달되고, 세포에서 생성된 이산화 탄소는 폐포로 이동해 숨을 내쉴 때 배출되는 것이다. 폐포로 들어온 공기를 환기, 폐포를 ㉨ 둘러싼 모세 혈관을 따라 흐르는 혈액을 관류라 하며, 단위 시간당 환기량을 관류량으로 나눈 값을 환기-관류 비율이라 한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그 값은 약 0.8로, 혈액 내 산소 공급이 비효율적인 상태에서는 이 수치에서 크게 ㉩ 벗어나 저산소 혈증이 유발된다.

| 갈래 복합 | 작품 및 선지 적중

- 평가원 지문과 간쓸개 지문에서 김영인의 「그 나무」를 공통으로 출제함
- 자연물(대상)과 화자의 관계를 다룬 <보기> 문항의 취지가 유사하며, 작품에서 문제화한 지점 및 선지 내용이 일부 일치함. 특히 '가난한 소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동일하게 정답 선지로 구성함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가)

한 해의 꽃잎을 ㉠ 떠칠 만에 활짝 피었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다리 ㉡ 그들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울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해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김영인, 「그 나무」 -

* 소지 : 부정을 없애고 소원을 빌기 위해 태워 올리는 종이.

2026 간쓸개 시즌3 4차

(가)

한 해의 꽃잎을 떠칠 만에 활짝 피었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 놓고
 앞줄 아름다리 그들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울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해매고 다녔던 ㉣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김영인, 「그 나무」 -

* 소신공양 : 자기 몸을 태워 부처 앞에 바침.

* 소지 :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연은 교감과 관찰의 대상으로서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펼쳐 나가는 데 기여한다. (가)에서 자연은 화자에게 자신의 지지부진한 처지를 환기하는 연민의 대상이다. 시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화자의 삶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스스로 묻고 찾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나)에서 자연은 화자에게 관찰과 지각의 대상이다. 시는 일상의 사물이 된 자연에 대한 표면적 관찰을 넘어, 대상에 깃든 힘들의 작용과 역동적인 시간을 드러냄으로써 자연에 대한 새로운 지각으로 나아간다.

- ① (가)에서 '나'가 '그 나무'를 보고 자신의 방향을 떠올린다는 점에서, '그 나무'는 화자의 처지를 환기하는 대상이군.
- ② (나)에서 '목질'과 '나이트'로 이루어진 무늬는 '대체로 깎아' 만든 가구의 문양이라는 점에서, 화자가 일상의 사물이 된 자연을 보고 그 표면을 관찰한 결과이군.
- ③ (가)의 화자는 '늦된 나무'의 '명울'을 보고 연민의 정서를, (나)의 화자는 '나이트'의 '흔적'을 보고 나무에서 작용한 힘들에 대한 지각을 드러낸 것이군.
- ④ (가)의 화자는 나무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푸릇한 일새'로, (나)의 화자는 겨울을 겪은 후 나무가 맞이한 긍정적 시간을 '푸르고 진한 빛'으로 형상화한 것이군.
- ⑤ (가)의 '가난한 소지'는 여름 이후의 '저 나무'를 향한, (나)의 '귀기울'임은 '난폭한 힘'과 맞선 '거대한 힘'을 향한 화자의 기원이 담긴 점에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전망을 표현한 것이군.

10.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와 (나)에는 모두 대상과의 동일시가 나타나지만, 그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가)에서 자신이 발견한 대상에 연민의 시선을 보내던 화자는,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바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나)에서는 대상을 관찰하며 생명력을 상실한 사회를 떠올리던 화자가 오히려 그 대상으로부터 시선을 받는 상황이 제시되는데, 이러한 시선의 역전에는 자신이 대상과 다르지 않다는 반성적 성찰이 깔려 있다.

- ① (가)에서 화자가 다른 나무의 꽃이 다 졌는데도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채 '명울'을 매단 '늦된 그 나무'가 '안쓰러웠'다고 한 것에서, 대상에 대한 연민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가)에서 '그 나무'가 늦게라도 꽃을 피울 것을 기대하며 자신도 '늦깎이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화자의 모습에서,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③ (가)에서 다른 나무들이 '가난한 소지'를 올릴 때 '그 나무'도 그럴 수 있기 바라는 것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화자 자신의 삶도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겠군.
- ④ (나)에서 화자가 '죽어서' 딱딱해진 '북어들'로부터 떠올린 '막대기 같은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에서, 생명력을 상실한 사회에 대한 안타까움의 시선을 엿볼 수 있군.
- ⑤ (나)에서 관찰 대상이던 '북어'가 화자를 향해 '너도 북어지'라고 하는 상황에는, 시선의 역전을 통해 자신이 대상과 다를 바 없다는 반성적 성찰을 드러내려는 화자의 의도가 담겨 있겠군.

| 고전시가 | 작품 적중

- 평가원 지문과 간쓸개 지문에서 「만전춘별사」를 공통으로 출제함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26 간쓸개 시즌3 2차
2026 월간 간쓸개 02

(가)

얼음 위에 맺힌 자리 보아 임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얼음 위에 맺힌 자리 보아 임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A]
정 둔 오늘 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경경 고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오
서창을 열어하니 도화가 발하도다 [B]
도화는 시름없어 소춘풍*하도다 소춘풍하도다

넋이라도 임과 한데 지내겠다고 여겼더니
넋이라도 임과 한데 지내겠다고 여겼더니 [C]
어기신 이가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 작자 미상, 「만전춘별사」 -

- *경경 고침상: 근심에 싸여 있는 외로운 잠자리.
- *소춘풍: 봄바람을 회롱함.

(가)

얼음 위에 맺힌 자리 보아 님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얼음 위에 맺힌 자리 보아 님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정(情) 둔 오늘 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제1연>

경경(耿耿) 고침상(孤枕上)*에 어느 잠이 오리오
서창(西窓)을 열어하니 도화(桃花)가 발(發)하도다
㉠ 도화는 시름없어 소춘풍(笑春風)*하도다 소춘풍하도다

<제2연>

넋이라도 님을 한데 녀넋 경 여기더니
넋이라도 님을 한데 녀넋 경 여기더니
버기터시니*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제3연>

(중략)

아소 님하 원대 평생(遠代平生)에 여윌 줄 모르옵세

<결사>

- 작자 미상, 「만전춘별사」 -

- *경경 고침상: 근심에 싸여 있는 외로운 잠자리.
- *소춘풍: 봄바람에 즐거워 웃음.
- *버기터시니: 우기던 사람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6길 3, 3층 T 02-567-9507 F 02-567-9509

www.yigam.co.kr